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들 이번주 전북 방문 잇따라

도 “정부와 적극 협의
도민 기대에 부응할 것”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이번주 중 추진되는 주요 일정 및 계획을 언론에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은 전영평 기획조정실장이 맡아 도정의 방향과 향후 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전 실장은 먼저 “이번주 도내에서 국무총리, 장·차관과 관련된 행사가 많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는 전북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전북의 현안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가장 큰 일정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다. 도는 이를 통해 역점 추진하는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 새만금 주요 현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브리핑에서는 도가 정부와 국회에 중점적으로 건의할 현안들도 소개했다. 새만금 개발 정상화를 위한 글로벌



전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1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들의 전북 방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협력, 방위산업 및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험프 산업 기반 확충, 그리고 전북 내부 개발 전략 등이 주요 의제로 꼽혔다. 이는 전북 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가 꾸준히 추진해 온 핵심 과제들이다. 전 실장은 4일에는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되는 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정치권과 도지사가 함께 하는 자리에서 전북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주 일정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열린 도정’이라는 행정 기조를 확고히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지난달 29일 전주 벽계가든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지역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민주국민운동위원회의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민주 한준호 최고위원, 전북지역 인사들과 발전방안 논의 “도민과 함께 전북 발전 노력하겠다”

더민주국민운동위원회 등 공동주관… 대선 이후 처음으로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지역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민주국민운동위원회(전국위원장 최한양)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여성회장 용화숙, 사무총장 심보균)가 공동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전주 벽계가든에서 열렸으며, 제21대 대선 이후 처음 마련된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됐다. 간담회에는 전북 14개 시·군의회의장과 의원, 도의원, 지역 단체장 등 다수의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전북 발전 전략과 주요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전북발전연합회 심보균 사무총장은 “전북이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전북 발전에 도움을 주시길 바라며, 특히 익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한 지역 발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전북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동반자”라고 밝혔다.

특히 한 최고위원은 최근 제기된 내년 지방선거 전북 출마설에 대해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궐선거와 대선 당시 호남을 담당하며 지주 내려오다 보니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제 역할은 중앙정치에서 지역과 손을 맞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인사 교류를 넘어 전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현안을 중앙 정치와 연결하는 소통의 장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지역민의 목소리가 중앙 정치권에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하며, 향후 이런 소통의 자리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민주 안호영 의원,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



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한 혁신적 대책”이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미래 위한 또 다른 길 열 것”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사임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이 2년 2개월간의 재임을 마치고 미래지향적인 전북 발전을 위한 또 다른 길을 모색하고자 1일 이임식을 갖고 도의회 기자회견을 찾아 이임인사를 했다. 재임기간 동안 그는 전북연구원이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계획과 지역 인재 육성에 깊은 발자취를 남겼다. 이 원장 부임 후 단 한 명의 정규직 이직이 발생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고, 승진 체계와 복직 개선은 연구원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사기를 높였다. 또한, 새로운 연구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며 조직의 인적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10여 명의 고급 연구 인력을 새롭게 채용하며 연구원의 미래를 위한 인재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 그의 또 다른 업적은 연구원 공간 혁신에 있었다. 연구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연구원 공간을 재배치해 연구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것은 예산확보를 통한 전북연구원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명품 건물 신축안을 마련한 것이다. 4층 한옥 목조 신축 건물과 탄소중립 정원 설계는 단순한 건축을 넘어, 전북연구원의 위상을 높이는 상징적 성과였다. 외부와의 연계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큰 흔적을 남겼다. 전북연구원에 석좌 연구위원 제도를 도입해서 중앙에서 활동하는 큰 인물을 전북연구원에 석좌 연구위원으로 모셔 와서 연구에 전념토록 했다. 이재명 국민권선 정부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이한주 국정기획위위원장, 김병국 정부비서관 등 다수가 이 제도를 통해 중앙에서 전북의 우군으로서 특별한 활약하고 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이 2년 2개월간의 재임을 마치고 미래지향적인 전북 발전을 위한 또 다른 길을 모색하고자 1일 이임식을 갖고 도의회 기자회견을 찾아 이임인사를 했다.

조직 인적 역량 강화 나서
연구 분위기 조성 큰 기여
전북 백년포럼 등 통해
전북학 연구·지역 정책
연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이를 통해 전북을 이해하는 훌륭한 인재가 정부 요직을 맡아 전북과 국가를 함께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부적으로는 연구원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며 조직 문화를 혁신했다. 석학을 초청해 전북 백년포럼을 열고 그 후 조인트 세미나 개최, 창립 기념일 성과 공유회 등 다양한 행사를 정례화해 연구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연구원은 단순한 전북의 정책 연구기관을 넘어 전북학 연구와 지역 정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 원장은 인터뷰에서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에 좋은 인재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조직과 리더 모두를 성장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구원 내부 구성원들은 “이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의 열정과 철학이 조직 곳곳에 스며들었다. 떠나는 것이 아쉽지만, 그가 남긴 시스템과 네트워크는 앞으로 연구원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에게 재임 기간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연구원 구성원과 함께 추진한 전주 하계 올림픽 국내 개최지 선정과 전북연구원 건물 신축 예산확보라고 말했다. 이남호 원장은 전북연구원을 떠나지만, 그의 발자취는 여전히 연구원 곳곳에 남아 있다. 조직의 안정과 혁신, 인재 육성, 공간과 정책의 조화까지. 그는 자신이 만든 기반 위에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며 전북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길을 걸어가길 준비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이성운 의원, ‘이심전심
소통의 날’ 성황리에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은 지난달 30일, 전주 서신길공원에서 ‘이심전심(李心全心) 소통의 날’ 행사를 열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은 교통 불편과 주차난,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생활 속 민원을 비롯해 9월 정기국회와 검찰개혁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를 지역구 도의원인 김희수·최형열·김기재·장영국 의원과 정성길·최명철 전주시의원 등 전원이 참석해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경청하는 등 시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현장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전 정권 인사들의 흉상 훼손과 교환을 요구하며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 “운석열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촉구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 호남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건희 특검·내란 특검·채 상병 사건 특검 등 ‘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번 ‘이심전심 소통의 날’은 단순한 주민 간담회를 넘어, 민생 현안을 직접 듣고 개혁 과제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다. /이만호 기자

“군민들과 호흡해 큰 변화 만들어 낼 것”

장승필 민주 도당 홍보소통국장, 순창지역 도의원 출마 시사



“순창은 언제나 제 마음속 고향입니다. 군민 한 분 한 분과 함께 호흡하며, 작은 손길이라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홍보소통국장을 맡아온 장승필(46) 국장이 고향 순창에서 전북자치도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8월 31일자로 도당 홍보소통국장 직을 사임하며 9월 1일 도의회 기자회견을 찾아 이렇게 출마 소감을 전했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순창 지역구 도의원으로 도전장을 내민 그는, 단순한 지역 정치인을 아닌 ‘순창을 아끼는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의 마음을 앞세웠다. 1979년 순창읍에서 태어난 장 국장은 순창중앙초교, 순창북중, 순창고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응용생물공학부에서 학사, 같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쳤다. 지역을 떠나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쌓은 경험은 그에게 고향 주민을 위한 ‘정치적 책임감’으로 되돌아왔다. 지난해 12월 도당 홍보소통국장으로 임명된 이후 그는 당원과의 소통, 기자들과의 현안 공유, 지방과 중앙 정치권을 잇는 가교역할 등 다방면에서 헌신하며, 특히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당선에 기여하는 등 정치 역량을 입증했다. 그 결과 계엄 태핵 관련과 대선 승리 공로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 표창장을 2회에 걸쳐 연속 수상하는 등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하지만 장 국장이 순창 주민에게 보여준 진정성은 정치적 성과보다 더 빛난다. 지난여를 기록적인 폭우로 순창의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었을 때, 그는 도당 임직원들과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피해 농가를 직접 돌고, 구호물품을 마련하는 등 누구보다 먼저 현장을 누볐다.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고향에 줄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겠다”는 그의 마음은, 순창 주민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순창 청년회의소 회장, 전주예술고 운영위원장, 농업회사법인 (주)명인본가 대표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활동과 기업 경영 경험은 장 국장의 폭넓은 인맥과 실무 능력을 증명한다. 또한 전통장인 제조 기능인 인정과 식품명인 전주사 선정, 국회의원(김진표) 공로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문재인 대통령) 표창 등 다수의 공로 인정은 그의 성실함과 그간의 헌신을 뒷받침한다. 장 국장은 출마를 앞두고 “도의원이 된다면 고향 순창을 위해 작은 손길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으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후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홍보소통국장으로는 최광호 전 전주시장 비서실장이 맡아 활동하게 되었다. /이만호 기자